

비움의 세상에서

신윤식

버려지고
비워지기를



두려움도
타협도
망설임도
질책도
버려지고 비워지는
그 길로 가기를

말없이 흐르는
세월의 강에
허공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의 찻질들
하나하나 벗어던지고
은혜로 옷 입혀진
비움의 세상에서
하늘의 소리
가슴으로 듣기를

제23권

47

2015년 11월 29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MATHETES

주일오전설교

하나님의 질투

겔 23:22-27



오홀리와 오홀리바로 비유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사모했던 대상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오홀라는 앗수르, 오홀리바는 앗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모두는 동일하게 강한 국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국가는 돈, 즉 부요한 경제와 막강한 군사력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강한 존재로 만들어 줄 돈과 군사력에 대해 목말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무엇에 목말라 할까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강한 존재로 만들어 줄 것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유혹 아래 있던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시작되었던 목마름이고, 이 목마름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게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창 3:5절에서 사탄은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나라”**는 말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에 붙들린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3:17)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창 3: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고 말합니다.

여자는 선악과에 목말라했습니다. 이유는 선악과가 자신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의 인간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각자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따라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목마름에는 만족이란 것이 없습니다. 목말라 했던 것을 얻었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목말라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바라며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목말라 했던 것을 얻었다 해도 잠시 기뻐할 뿐 어느 순간 가치는 점차 상실되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목마름에 허덕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홀리바가 앗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다시 애굽을 사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강한 것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앗수르를 사모하다가도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고 사랑하게 되어(14절) 사절을 갈대아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바벨론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17절)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며 다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랑은 어느 한 대상으로 고정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재판을 이스라엘이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들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 그들의 법대로 재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꺾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없애드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5,26절)고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임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의 질투는 자신만 사랑해줄 것을 원하는 대상이 자신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관계에서 질투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질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의 위치에 있을 때 오직 신랑만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신부 되게 하신 하나의 신부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은 한 신랑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남편을 만들었습니다. 한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멋있게 보이는 남자를 봤을 때 기존의 남자는 버리

고 그 남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은 욕망으로 살아온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23장에서 지금껏 말씀드려온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 한분만 사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범죄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요일 1: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앗수르, 바벨론, 애굽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과연 여러분께 만족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안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는 만족되지 않는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남자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한 남편,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남편만 사랑하고 만족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은 오직 하나의 대상으로만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마음에 여러 남자를 둔 음란을 행한다고 해서 이혼하고 다른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한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크고도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질투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뜻이 없으시다면 '질투'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구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 24: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길 것을 말했고 백성들은 수 24:16-18절에서 자신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또 다른 사모의 대상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백성들은 자기 마음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고 장담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신으로 믿고 제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신에게 매력을 느끼고 성전에 끌어 들인 것입니다.

출 20: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요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든 이 규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신의 개념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 34: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나라”**고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마음에 다른 사모의 대상을 두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속은 이미 다른 신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자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자리하셔야 할 신의 자리를 피조물인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앗수르, 바벨론, 애굽과 같은 경제적 부요와 힘을 제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사모하며 그들의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이방인이 섬기는 신을 통하여 그들이 누리는

삶의 부요를 자신들도 누리며 그 기쁨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사모했던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고초를 겪게 하는 것보다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때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인간의 실상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고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날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일 뿐입니다.

속 8: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의 방해로 2년 만에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다. 성전을 재건할 때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성전 재건에 불만이 생겼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로 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8: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시온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시온은 성전을 뜻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용서가 복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세계를 나타내게 위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없는 목마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세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것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거나 하고 종교적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탐심이 목마름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크게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목마름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목마름을 자신의 열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길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다른 남자를 사모하는 음란인 것입니다.

요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요 4:12)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자신들에게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 물을 마시는 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는 기도가 있고 성경이 있고 여러 가지의 행위가 있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용서를 말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목마름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임을 알게 되고, 무엇을 행한다 해도 죄를 덮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안다면 음란한 우리에게 오셔서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참된 남편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안에 참된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남겨둡니다. 이것이 질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열심을 행한다 해도 여러분의 열심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인한 만족은 순간의 기분이며 느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면 애굽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굽 또한 허상일 뿐이며 그리스도가 생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오후설교

(11.8일 설교 : 믿음 39강)

믿음과 열매

마 7:17-20

성경에서 언급되는 열매를 성화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개의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성화는 변화와 실천에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열매 또한 나타나고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에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종교성에 의한 생각일 뿐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와는 거리가 멉니다. 즉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도 거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로 이해하면서 인격과 성품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삶의 변화가 있음으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 되어야겠다’ 는 생각을 이끌어 내기에 효과적인 말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과연 기독교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지부터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의 변화는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하여 연단되어 변화됨으로 서서히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열매는 이웃에 대한 친절이었습니다. 친절하지 못했던 자신이 친절을 베풀게 된 것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친절은 가짜고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친절만 참되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전인수격의 모순된 논리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현대 교회가 실천을 강조하고 신앙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랑, 섬김, 헌신, 구제, 봉사 등등의 많은 내용들이 실상은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맺어지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랑, 섬김, 헌신, 봉사 등을 믿음의 열매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고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도

가 맺힌다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이지 가시나무 일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시만 가득하다면 그 나무는 가시나무이지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실상은 가시로 가득한 상태에 있음에도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품고 있는 오류이며 모순입니다. 열매를 보고서도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 로 규정합니다.

현대 교회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로 자랑하듯 말하는 모든 실천적 내용들과 현상들을 가차 없이 부인해 버리시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라며 그들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믿음의 역사로 규정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없으면 마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겠지만 그러한 것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뜻에 관심 두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증거물로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함을 믿음의 증거물로 내세워서 그러한

증거물이 있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이 자리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행함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주가 되십니다. 그들은 주의 행함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주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상 행함의 주인은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행한 자신들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말할 때 무엇에 관심을 두니까? ‘열매가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입니까? ‘열매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열매로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확인하고 ‘천국갈 수 있다’는 확신에 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17,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나쁜 열매를 맺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

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열매의 역할은 나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증거하기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열매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자연히 맺어 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못된 나무일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서는 늘 나쁜 열매만 나타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힌 인간이기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권능을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나쁜 열매만 맺어집니다. 때문에 못된 나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나무를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못된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좋은 나무로 심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관계에 있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인격적인 것도 성품적인 것도, 그리고 윤리적 실천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맺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자신의 일을 자랑하던 자들은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는 것도 타인의 죄를 책망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 타인의 죄에서 자신의

악함은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서 자신의 악함을 깨달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인간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폭로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폭로되면 의에 대해 무능한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생각이 자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인한 열매는 자신이 폭로되는 자리에서 죄인 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며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이며 그 열매로 인해 좋은 나무가 세상에 나타내는 열매가 무엇인지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정당한 자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지금껏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신자는 단지 그 열매로 존재할 뿐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일하신다는 열매로 존재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수요일설교

(11.25일 설교 77강)

함께 하심의 의미

창 31:1-5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고 하고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자 라반 역시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에 대한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피신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비록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긴 했지만 야곱이 라반의 아들 된 것이 아니고 상속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라반보다 더 번성해졌다면 라반의 아들들이나 라반의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은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는 길에 유숙하면서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28:15)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신앙하는 신이 함께 해준다고 믿고 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에 둡니다. 신이 함께 하면 재앙으로부터 보호 받고 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일 또한 잘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의미에서의 '신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종교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신의 속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라반의 집에 와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염소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은 재산 증식일까요? 물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혈혈단신의 몸으로 라반의 집에 왔는데 거기서 아내 둘을 얻었고 아들 열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분명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레아를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식 경쟁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푸신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야곱에게 증식된 양과 염소는 정당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라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곱의 계획에 의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좋지 않은 계획을 도운 것이 되고 그로 인해 라반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나를 부자 되게 하신 것만 생각하며 은혜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분입니다. 야곱의 정당하지 못한 계락을 도우신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재산이 증식된 것을 두고 무작정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도우신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잘못된 시각 중의 하나가 결론입니다. 되어진 결과를 기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서의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시고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고 죽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욥의 고난과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처음보다 많은 복으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도 그런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는 미약하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창대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만연한 간증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우심, 인도하심을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 것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야 할 가치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많아진 것을 두고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반보다 나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곱도 라반과 동일하게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술수와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양과 염소가 많아졌다는 결과를 기준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경험한 것은 속임수와 경쟁과 다툼입니다. 그 속에서 야곱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고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야곱이나 라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속임수와 경쟁과 다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이 또한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라 이름 하는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본인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속임수와 경쟁과 다툼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함께 하심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야곱의 인생이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함께 하심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볼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때로는 내가 원한 대로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야곱이 부름 받은 것이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그것이 야곱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자신을 던져 버린 신자라는 모든 일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실패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임을 믿는다면 두려워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에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함께 하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부르고 찾고 원하는 하나님은 실상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 하며 정성과 열심을 보이느라 헌금을 하고 자기 소원을 빌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종교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종교성과 탐심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때로는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탐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비로소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두구꽃)

오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 8:7-8)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전 예배

11:00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6장**
교 독 문 **43(시99편)**
기 도 **김종건 집사**
찬 송 **546장**
성경봉독 **겔 23:22-27**
설 교 **신윤식 목사**

하나님의 질투 (54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314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7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조규현 장로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오후 예배

14:30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407장**
기 도 **최두임 권사**
찬 송 **411장**
성경봉독 **고후 1:23-24**
설 교 **신윤식 목사**
민음의 7쁨 (민음42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95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이경숙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신윤식 목사

창세기 78장

은석소식

1. 신자의 미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고 어떤 삶에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불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한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여분이 남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3. 아목주 집사님이 3개월 예정으로 미국에 가셨습니다.